

“사찰 찾는 대중에 기쁨 주는 것에서 포교는 시작”

10월14일 경남 부곡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한국불교종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옛 선지식들의 발자취와 정신이 깃든 길을 따라 순례하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순례 기간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비롯됐다. 이에 포교원과 중앙종회가 ‘한국불교 미래’ ‘포교’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대중들이 쉽게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라는 방식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영상 인사말을 통해 “수많은 역경 속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정진결사는 침체된 한국 불교에 신심과 원력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함이었다”며 “간절함이 없다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지 않는다.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불교는 차별 없는 세상을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데 달렸다”며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때 한국불교 종흥의 원동력이 생겨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코로나19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며 “모든 종교가 사찰을 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불교 또한 그렇다. 그 생존의 길은 바로 포교 방법의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오늘 지혜로운 사부대중이 모인 이곳 부곡이 바로 부처님 입멸 후 법과 율을 결집했던 칠엽굴이고, 포교종책 워크숍은 ‘21세기판 결집’이 될 것”이라며 “각 분야의 포교 일꾼들이 함께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부대중이 간절히 원했던 불교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신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포교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3부 수행의 길, 포교의 길에는 의성 교운사 주지 등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조격 스님이 화상채팅 줌(zoom)을 통해 참석했고, 포교부장 선임,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범원 스님과 주운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 윤재웅 수미산 원정대원, 안현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장이 현장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크콘서트는 중앙종회의원 진명 스님의 사회로 불교 미래를 위한 포교방안에 대한 교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10월14일 열린 토크콘서트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불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본사주지·종회의원·신도단체 등, 한국불교 포교활성화 방안 모색

포교예산·인력 확충·도심포교당 건립 등 시급한 해결과제도 제기

‘비불자와 인연맺기’·사찰음식 활용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 제안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봉선사 주지 조격 스님은 “봉선사 조실스님(월운 스님)은 사찰이 ‘어린이에게 꿈’ ‘청장년에게 희망’ ‘노인에게 안심’을 주는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그 속에 함축된 의미가 곧 포교”라며 “사찰을 찾는 대중에게 늘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포교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운사 주지 등은 스님은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불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스님들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포교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여건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종회의원 범원 스님은 “여러 포교방안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삼귀의 의미부터 제대로 알고 그에 따라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도단체 대표들은 포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종단차원에서 포교인력 확충 및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운식 중앙신도회장은 “전국 교구본

사별로 20여개 교구신도회가 구성돼 있지만 그 가운데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새롭게 신도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 신도회가 활성화되고 역량이 결집된다면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도 “포교사단은 14개 지역단이 조직돼 있고, 그곳에서 5000여명의 포교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새로 배출되는 포교사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단차원에서 포교사단 활성화 및 포교사 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현민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불자들의 실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인근의 사찰에서 범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대다수 사찰들은 산중에 위치해 있어 불편함이 크다”며 “도심 가까운 곳에서 범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심포교당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선임 스님은 “뉴미디어 포교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포교원은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미 오랜기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VR기술을 활용한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순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 다양한 포교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수미산원정대는 수미산이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공간이 수미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는 새로운 불교운동”이라고 소개한 윤재웅 수미산 원정대 1기 대원은 “포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불자에게 불교와 새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문화와 사찰음식 등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활용한 포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토크콘서트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불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포교종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참여했다.

부곡=권영희 기자 oyemc@beopbo.com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제 위치서 수행정진 매진할 때 불교종흥”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

상월선원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외적으로는 침체된 불교에 새로운 신심과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 다. 한국불교 종흥을 위한 작은 토대라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우리가 걷는 것은 많은 불자들에게 신심과 원력을 심어주고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적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신심과 원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각자 제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땀 빠지는 수행과 정진을 한다면 중흥이란 말이 굳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성직자로서 수행자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런 원력을 갖지 않고 단일한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중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행결사사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차별 없음’입니다. 여기 있는 사부대중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장한



순서대로 밥을 먹었고, 똑같은 텐트에서 잤고, 똑같이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부대중이 방심하고 안일하면 인도불교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불교도 문화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스님들도 없어지고 불교는 역사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앉아서 안일한 불교를 행할 때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사부대중이 불교의 미래를 내다보고 차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교종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부대중이 보여준 하나의 공동체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과 소통해 포교종책 수립할 것”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종단 포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와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포교종책 설문조사’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등 취임식 때부터 강조했던 종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교원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사부대중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단 포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은 마치 갈증에 목말랐던 사람이 시원한 감로수를 마신 것처럼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불교의 앞날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남은 “돌이켜서 한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에게 각자 한 방향을 맡아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교단은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 다. 그때 지혜로운 스님들이 칠엽굴에 모여 부처님의 법과 율을 결집하여 불교를 수호하셨



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모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불교가 없었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지금 이 한국불교의 위기라고 한다면, 오늘 지혜로운 사부대중 여러분이 모인 이곳 부곡이 바로 칠엽굴이고, 포교종책 워크숍은 ‘21세기판 결집’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실시했던 포교종책 설문조사에서 종도들은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중앙종회의원스님들, 각 분야의 포교 일꾼들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부대중이 간절히 원했던 불교의 모습입니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고민을 녹여낸다면 가장 가치 있는 진전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심곡암 가을 산사음악회

2021. 10. 24. 일

꽃단풍 고운 결실의 가을을 맞아 코로나19를 잊고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산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질 10월 24일에 우리가락 소리꾼 장사익씨를 모시고 산사음악회를 펼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가을 잎이 제각기 단풍이 물들어가는 세상이 펼쳐지길 소망하오며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심곡암 실시간 유튜브 접속 방법
10월 24일 12시 00분 ~ 15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1) 심곡암 **밴드**에 접속후
공지된 “심곡암 산사음악회 실시간 유튜브 접속안내”를 통해 접속한다.

2) 심곡암 **홈페이지** 접속후
공지된 “[심곡암 산사음악회 실시간 유튜브 접속안내]”를 통해 접속한다.

3) **유튜브** URL로 직접 접속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eBHYtvAoYzP4TmLV3gbjg/?guided_help_flow=5)

주최 심곡암
후원 성북사암연합회, 이진희 정형외과, 이영태 세종전기공업(주), 김건하 임광기전(주)
협찬 심곡암 운영위원회

10월 24일(일요일)

제1부 예불 공양
• 오전 10시 30분 사시 불공
• 오전 11시 30분 점심 공양

제2부 다도
• 정오 12시 00분 육법 공양
• 정오 12시 20분 다반 개반

제3부 산사음악회
• 정오 12시 30분 산사음악회

■초대 가수 : 장사익
■출연
- 정향숙(비나리, 우담바라)
- 홍상기(기타 연주)
- 황상미(소프라노)
- 이창준(판소리)
- 대한무지개예술단 (대한민국 승무가락)